

## 회원사 소식

### 주원산오리 · 모란식품, 2012 충북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충북 충주시 탄금대 세계무술축제 행사장에서 '2012 충북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충북의 대표 브랜드 축산물을 한 곳에서 보고 싸게 살 수 있는 한마당 잔치인 '충북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은 매년 가을 충북에서 열리며 이번 페스티벌에는 우리 협회 회원사인 주원산오리와 모란식품이 참여하였다. 오리고기 대표 브랜드업체인 주원산오리와 모란식

품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자사의 부스를 열어 각각 오리고기 제품을 전시하였다. 전시제품으로는 슬라이스훈제오리고기뿐만 아니라, 오리고기로 만든 떡갈비, 오리고기소시지, 양념오리불고기 등 다양한 오리육제품이 있었다.

두 회원사는 또한 오리고기 무료시식행사를 통해 오리고기의 뛰어난 맛을 널리 알려 참관객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 (주)정다운오리 프랜차이즈 '대사랑' 2호점 오픈



(주)정다운(대표 선종아, 유승희)이 광주시 품암동에 위치한 '대사랑' 1호점의 호평에 힘입어 지난 8월 24일 광주 북구 매곡동에 '대사랑' 2호점을 오픈했다.

(주)정다운오리 프랜차이즈인 '대사랑'은 (주)정다운에서 생산된 웰빙푸드인 오리고기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된 연잎과 대나무의 향이 어우러진 웰빙대 통밥을 내세운 장작구이 연잎 대통밥 전문점으로

전체요리에서 디저트를 아우르는 풀코스요리를 주 메뉴로 하고 있으며 부담 없는 가격과 통나무 원목으로 꾸며진 자연친화적인 컨셉의 인테리어를 선보이며 가족외식이나 손님접대장소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날개찜구이같은 신메뉴를 코스요리로 개발하여 내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오리의 전 부위를 활용한 신메뉴를 개발하여 웰빙푸드인 오리고기의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정다운에서는 지속적인 투자 및 신메뉴개발로 프랜차이즈 '대사랑'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신이내린 선물이라는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 (주)화인코리아 '미니삼계탕' 수출 활력 기대

국내 대표적 닭·오리 가공업체인 (주)화인코리아의 발 빠른 대일 수출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주)화인코리아는 9월 20일 해외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미

니 삼계탕을 개발, 수출확대에 나섰다 밝혔다. 이 회사의 수출 주력품은 삼계탕과 닭·오리를 주 재료로 한 죽 제품이다. 이 가운데 삼계탕이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일본으로 팔려나가고 있다.

미니 삼계탕은 이날 8만달러 어치가 처음으로 선적됐다. 회사 측은 올해 3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올릴 히트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는 이 회사의 올해 수출목표는 800만달러로 현재 430만달러를 돌파했다.

## 옛골토성, 훈제오리바비큐 선물세트 출시

참나무 장작 바비큐 전문점 옛골토성은 추석을 맞아 2012모듬바비큐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자연을 구운 훈제오리바비큐, 훈제삼겹바비큐, 립바비큐, 너비아니 등 다양한 바비큐로 구성되어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고 총 두 종류가 출시되었다. 특히 이번 선물세트로 처음 포함되는 ‘옛골토성 자연을 구운 훈제오리바비큐’는 인공적인 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MSGD(L-글루타민산나트륨), 유통을 길

게 하기 위한 합성보존제, 인공적인 색을 내기 위한 합성발색제 등 화학 첨가물뿐만 아니라 설탕, 전분, 유청단백질 등 9종의 식품첨가물이 없어 즐거운 한가위 감사의 마음과 함께 건강까지 선물할 수 있는 효도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다. 옛골토성 자연을 구운 오리는 국내 최초 개발하여 옛골토성 가맹점과 명절맛이 한정출시되는 선물세트로만 맛볼 수 있다.

## 관련 업계 소식

### 농협사료 창립 10돌, 세계적인기업 도약 다짐

농협사료(대표이사 오세관)가 사료사업 50주년, 농협사료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9월 3일 창립기념식을 갖고 축산농가에 더욱 다가설 것을 다짐했다. 농협사료는 업계 최초로 지난해 300만톤 생산물량 달성을 기록했으며, 지난 구제금융(IMF) 당시에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민간업체의 사료공급이 어려워지자 2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보면서 양축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등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노력을 다해 왔다. 특히 올해는 사료가격 인상 요인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3% 대의 가격인하를 단행, 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양축농가와 아픔을 나눴다.

농협사료는 상생협력·최고지향·창의혁신·신뢰중시를 핵심가치로 삼아 2020년까지 세계 20위권 사료기업으로 도약해 사업물량 확대에 따른 이익금을 국내 축산업 발전과 농가환원에 쓰겠다는 내용의 비전을 제시했다.

오세관 대표이사는 “사료사업 반세기를 맞는 뜻깊은 날이지만 국제곡물가 급등에 따른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간단한 기념식만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농협사료는 양축농가와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보다 좋은 품질, 낯은 서비스로 다음 반세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